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제주지역 학교 영양(교)사의
식생활교육과 영양상담
실태 및 인식 조사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營養教育專攻

朴 恩 雅

2015年 8月

제주지역 학교 영양(교)사의
식생활교육과 영양상담
실태 및 인식 조사

指導教授 蔡仁淑

朴恩雅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5年 6月

朴恩雅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2015年 6月

A study on the operation and perception
on dietary life education and nutrition
counseling of nutrition teachers and
dietitians in Jeju

Eun-A Park

(Supervised by professor In-Sook Chae)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2015. 8.

DEPARTMENT OF NUTRITION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표 목 차	iii
국문요약	iv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3
1. 영양·식생활교육	3
1) 영양·식생활교육의 필요성	3
2) 학교 영양·식생활교육의 실태	4
2. 영양상담	7
1) 영양상담의 필요성	7
2) 학교 영양상담의 실태	8
III. 연구내용 및 방법	10
1. 조사대상 및 기간	10
2. 조사내용 및 방법	10
3. 자료 분석 및 통계처리	12
IV. 연구결과 및 고찰	13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3
2. 영양(교)사 직무의 중요도 및 수행도	15
1) 직무 중요도 및 수행도	15

2) 일반사항에 따른 직무 중요도	17
3) 일반사항에 따른 직무 수행도	21
3. 학교에서의 영양·식생활 교육	25
1) 영양·식생활 교육의 실태	25
2) 영양·식생활 교육에 대한 인식	30
3) 영양·식생활 교육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	33
4. 학교에서의 영양상담	35
1) 영양상담 실태	35
2) 영양상담에 대한 인식 및 의견	40
 V. 결론 및 제언	 43
 VI. 참고문헌	 47
 Abstract	 54

표 목 차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 사항	13
<표 2> 조사대상자의 근무지 특성	14
<표 3> 직무중요도 및 수행도	15
<표 4> 영역별 직무 중요도 및 수행도	16
<표 5> 일반사항에 따른 급식관리 영역의 중요도.....	18
<표 6> 일반사항에 따른 영양·식생활교육 영역의 중요도.....	19
<표 7> 일반사항에 따른 영양상담 영역의 중요도.....	20
<표 8> 일반사항에 따른 급식관리 영역의 수행도.....	22
<표 9> 일반사항에 따른 영양·식생활교육 영역의 수행도.....	23
<표 10> 일반사항에 따른 영양상담 영역의 수행도.....	24
<표 11> 영양·식생활교육 실시여부.....	25
<표 12> 대상별 영양·식생활 교육 횟수.....	26
<표 13> 영양·식생활교육 운영형태에 따른 현황.....	27
<표 14> 직접형태 영양·식생활교육의 현황	29
<표 15>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교육운영형태	30
<표 16> 영양·식생활교육에 대한 인식 I	31
<표 17> 영양·식생활교육에 대한 인식II	32
<표 18> 영양·식생활교육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	34
<표 19> 영양상담 실시여부.....	35
<표 20> 대상별 상담횟수.....	36
<표 21> 영양상담 형태.....	37
<표 22> 대면상담 운영 실태 I	38
<표 23> 대면상담 운영 실태II	39
<표 24>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영양상담 운영형태.....	40
<표 25> 영양상담에 대한 인식 및 의견 I	41
<표 26> 영양상담에 대한 인식 및 의견II	42

제주지역 학교 영양(교)사의 식생활교육과 영양상담 실태 및 인식 조사

본 연구는 제주지역 학교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영양·식생활교육과 영양상담의 실태 및 인식도를 조사·분석함으로써 학교에서의 영양·식생활교육 및 영양상담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제주지역 초·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영양(교)사 160명을 대상으로 2015년 5월 7일부터 5월 14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배부된 160부의 설문지 중 140부가 회수되었고, 회수된 140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된 자료는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 분석 하였고, 각 조사 항목에 대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빈도차이 검증은 χ^2 -test, 평균차이 검증은 t-test, ANOVA를 사용하여 집단 간의 유의성을 살펴보았으며, ANOVA에 대한 사후검증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세부적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근무경력은 10년 이상~20년 미만(37.9%)의 근무자가 가장 많았고, 고용형태에 있어서는 영양교사(67.2%)가 영양사(32.8%)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조사대상자의 근무지 특성에 있어서는 학교 설립유형은 국·공립(89.3%), 학교형태는 초등학교(55.0%), 학교급식유형은 도시형(55.7%)이 높게 나타났고, 급식인원수는 500명 미만(57.1%), 급식횟수는 1일 1식(84.3%)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둘째, 조사대상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급식관리, 영양·식생활교육 및 영양상

담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직무 중요도와 수행도를 분석한 결과, 모든 영역에서 중요도가 수행도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고($p < 0.001$), 영양·식생활교육과 영양상담은 급식관리 영역에 비해 중요도와 수행도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다.

셋째, 조사대상의 92.1%가 영양·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고, 학생대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월 3.71회로 가장 많았고, 근무경력이 길수록 교육횟수가 유의적으로 많게 나타났으며($p < 0.01$), 영양교사의 교육 횟수가 영양사에 비해 많게 나타났다($p < 0.05$). 학생 대상 영양·식생활교육은 직접형태에서는 급식지도(87.5%)를 실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간접형태는 가정통신문을 통한 교육은 96.8%, 학교홈페이지를 통한 교육은 96.1%로 높게 나타났다.

넷째, 조사대상의 영양·식생활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효과적인 이용시간으로는 관련 교과(실과, 기술·가정 등)수업시간 47.1%, 창의적 체험활동(특별, 재량활동 포함)시간 44.3%로 나타났으며, 교육 실시에 겪는 어려운 점에 있어서는 과중한 급식 및 행정업무(4.36점), 표준화된 지도안 및 지침서 부족(4.06점), 식생활교육 과정의 체계화 부족(4.00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영양·식생활교육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에 있어서는 교수능력 향상방안으로는 학습자료 개발(34.4%), 직무연수 강화(30.7%)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과중업무 해결방안으로는 급식행정업무의 간소화(61.4%)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기적 영양·식생활교육 운영 방안으로는 식생활교육 독립교과 설치(52.9%)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섯째, 영양상담에 있어서는 조사대상의 95.0%가 상담을 실시하고 있었고, 대상별 상담횟수는 학생 대상(월2.83회)이 가장 많았으며, 학부모 영양상담은 급식인원이 많을수록 시행횟수가 높게 나타났다($p < 0.05$). 학생대상 영양상담은 주로 대면상담(95.4%)으로 이루어지고, 상담 실시 후 지속적 관리는 5점 만점에 대해 2.69점으로 나타났으며, 조사대상의 80.3%가 연수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영양 상담에 대한 인식 및 의견에 있어서는 영양상담 실시를 위한 효율적 방안에 대해 일회성이 아닌 주기적 상담, 영양(교)사의 상담기술이 각각 4.9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영양상담 실시에 겪는 어려운 점은 과중한 업무로 인한 상담시간 부족이 4.2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상담프로그램 및 자료의 부족(3.89), 영양 상담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인식부족(3.76)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살펴볼 때, 제주지역 학교 영양(교)사는 과중한 급식 및 행정업무로 인해 영양·식생활교육 및 영양상담 실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행정 업무 개선을 통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직무 분석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영양(교)사들은 스스로 영양·식생활교육 및 영양 상담에 관한 실천 의지를 갖고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I. 서론

식생활은 인간이 영위하는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영역으로 음식을 통해 신체활동에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함으로써 생리적인 욕구의 해소는 물론 사회·심리적인 욕구까지 충족시킬 수 있다¹⁾. 그러나, 최근 경제수준 향상과 식품산업의 발달로 인한 식생활의 서구화, 맛벌이 부부의 증가 등 사회적 여건이 변화되면서 어린이 및 청소년의 비만, 당뇨 등 만성질환의 발병률이 높아지고 아침결식, 편식 등과 같은 식생활 문제점이 증가하고 있다²⁾³⁾.

아동기는 신체적, 정신적 성장 발달이 이뤄지고 평생건강의 기반이 되는 식습관이 형성되는 시기로 한 번 형성된 식습관은 쉽게 변화되기 어렵고 청소년기의 성장 및 성인의 균형 잡힌 식생활에도 영향을 주므로 이 시기의 올바른 식습관 확립은 매우 중요하다⁴⁾. 따라서 아동 개인이 영양관련 행동 및 기술을 습득하여 영양학적으로 풍부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식생활관련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⁵⁾. 영양 및 식생활교육은 아동의 영양지식과 식행동을 향상시켜 전반적인 영양소 섭취상태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⁶⁾, 영양 상담은 개인의 영양상태, 질병이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한 맞춤형 영양관리를 통해⁷⁾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한 의지를 향상 시킨다⁸⁾.

학교급식은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성장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고 올바른 식습관 확립을 통하여 향후 성인기의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식생활교육의 의미를 포함하는 단체급식이다⁹⁾. 아동들은 낮 시간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기 때문에 급식과 연계한 식생활교육 및 영양상담의 실시는 습득한 식생활관련 지식이 실생활에 적용되면 그 효과가 가정으로까지 파급되어 가족 구성원의 식행동 변화를 촉진하므로 교육성과를 증가시킨다¹⁰⁾.

따라서 학생들의 영양불균형 문제 개선 및 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자 2006년 학교급식법 전부 개정으로 2007년 3월 1일부터 영양교사가 배치되었고, 학교급식법 시행령(제8조)에 영양교사의 직무로서 식생활지도 및 영양 상담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¹¹⁾¹²⁾.

이렇듯 학교 영양(교)사의 역할이 단순한 급식관리 차원을 벗어나 아동의 올바른 식습관을 확립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영양교육자 및 상담자로서의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¹³⁾.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 및 청소년의 식생활교육의 강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식생활교육 지원법, 국민영양관리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⁹⁾. 뿐만 아니라, 2014년 3월부터는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규정(교육부훈령 제31호)이 시행되면서 월2회 이상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3조)과 식생활교육 지원법(제26조)에 의거한 교육을 실시하는 영양교사에게 가산금을 지급하고, 학교 교육활동 운영계획에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교육 계획을 반영하여 월별 추진계획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¹⁴⁾. 이를 통해 학교 영양(교)사가 직접 식생활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수업을 통해 이뤄지는 식생활교육은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식습관 교육 및 학교급식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것으로 판단된다¹⁵⁾.

그러나 이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수업을 통한 식생활교육은 과중한 업무와 수업시간의 미배정, 표준화된 교육과정 및 교재 부족, 학교관리자의 인식 부족 등의 원인으로¹⁶⁾ 이루어지지 못하고 주로 급식현장에서의 배식지도, 식사예절 지도 등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¹⁷⁾. 현재까지 학교에서의 영양교육 실태에 관련한 연구¹⁶⁻²³⁾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영양교육과 영양상담의 실태나 인식을 조사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며 최근 들어 서울지역 초등학교의 영양교육 및 상담현황과 개선방안²⁾, 경기지역 학교 영양(교)사의 영양교육 및 상담실태 관련 요인 연구²⁴⁾, 충북지역 초등학교 영양교사의 식생활교육과 영양상담 실태 및 인식에 대한 조사²⁵⁾ 등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제주지역의 경우 학교 영양(교)사에 의한 식생활교육과 영양상담의 실태를 조사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제주지역 초·중·고등학교 영양교사와 영양사를 대상으로 학교에서의 식생활교육과 영양상담의 실태 및 인식도를 조사·분석함으로써 향후 보다 효과적인 식생활교육 및 영양 상담을 실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영양·식생활교육

1) 영양·식생활교육의 필요성

식생활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충족시켜 심리적 안정감을 가져다주고,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끼게 하며 사회적 지원 또는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도구로 활용되기까지 그 영향력은 매우 크다²⁶⁾.

식생활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이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으로 정의되며,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동의 실생활에 적용되어 식생활과 관련된 잘못된 습관들이 올바르게 변화될 수 있도록 교육되어질 때 의의가 있다¹⁾²⁷⁾²⁸⁾. 즉, 아동들에게 바른 식생활을 전달하고, 식생활에 대한 관심과 의욕을 향상시켜 학습된 지식과 기술을 식생활에 실천하려는 태도로 변용케 하고, 스스로 식행동에 옮겨 실천하게 하는 것이다²⁹⁾. 최근에는 영양교육과 식생활교육 두 용어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혼란이 있다 보니 영양·식생활 교육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하는데, 용어를 무엇으로 선택하여 사용하든 학교에서의 영양교육 또는 식생활교육은 생활 속에서의 실천을 통한 바른 식습관 형성에 근본을 두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한다³⁰⁾.

어린이 및 청소년은 자신의 건강과 영양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건강의 중요성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기호에 치우친 식품선택을 하므로 편식이 심해질 우려가 크고, 이로 인해 잘못된 식습관을 형성하여 질병을 유발하는 등 정상적인 성장발육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한다³¹⁾. 최근 들어서는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운동부족, 지나친 간식 섭취, 불규칙한 식습관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비만,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소아 성인병의 발생이 증가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가치관이 완전히 확립되지 않은 아동기에 식생활지도 및 영양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식습관을 확립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³²⁾³³⁾.

또한, 아동기의 올바른 식습관은 평생의 건강을 좌우 할 수 있고 향후 성인기의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의 잘못된 식습관이나 인식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시켜 올바른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천적 측면의 교육이 요구되고 있다³⁴⁾. 때문에 식생활교육은 학습자 내면에 삶의 문제와 의미를 갖는 생활교육으로서의 면모와 가치를 지녀야하며³⁵⁾ 최종적으로 아동 스스로 식생활관리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³⁶⁾.

학교급식은 성장기 아동들에게 필요한 영양을 공급함으로써 심신의 건전한 발달 및 편식의 교정, 바른 식습관 형성, 질서의식, 협동정신, 위생관리의 생활화 등 사회성 함양을 위한 인성교육의 장을 형성하고, 나아가 평생건강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어야한다¹¹⁾³⁷⁾. 학교에서 급식과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식생활교육은 아동이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여 영양불균형 문제가 개선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신체발달이 진행되어 비만 등 만성질환을 예방 하는 효과가 있다. 학교는 학생들이 낮 시간의 대부분을 보내는 곳으로, 학교생활을 통하여 자극 및 또래집단의 영향을 받으므로 아동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학교에서의 영양 및 식생활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²⁾.

2) 학교 영양·식생활교육의 실태

영양 및 식생활교육은 개인 뿐 아니라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국가적 차원에서 협력과 관심이 필요한 부분으로 여러 관계부처에서 그와 관련된 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³⁸⁾. 학교에서는 학교급식 전담직원인 영양사가 영양교사로 전환되는 영양교사제도가 시행되어³⁹⁾ 2007년 3월 1일부터 영양교사가 배치되면서 식생활지도 및 영양 상담을 영양교사의 직무로 규정하였고 이에 영양교사는 「학교급식법」 제13조(식생활지도 등)에 의거하여 올바른 식생활습관의 형성, 식량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증진 및 전통식문화의 계

승·발전을 위해 학생을 대상으로 식생활지도를 실시하고, 보호자에게는 관련정보를 제공해야 한다³⁷⁾.

「국민영양관리법」에서는 법령 제10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식생활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법령 제17조1항에 영양사는 건강증진 및 환자를 위한 영양·식생활교육 및 상담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⁴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서는 법령 제13조 2항에 학교 중 초등학교의 장은 어린이 식생활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식생활교육 지원법」은 법령 제26조에 학교는 매년2회 이상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한 식생활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²⁷⁾⁴¹⁾. 때문에 최근에는 식생활교육에 대한 관심이 사회 전체로 확산되면서 식생활교육전문도서관(식생활교육 국민네트워크), 식생활 종합지원센터(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 박람회(농림축산식품부) 등을 통해 식생활개선과 교육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¹⁵⁾.

2013년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급식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초·중·고·특수학교는 11,575개교로 그 중 급식시설을 갖춘 학교 10,097개교에 영양(교)사 9,812명이 배치되었으며 직종별 인력배치 현황은 영양교사가 4869명(49.6%), 학교 회계직 및 기타 4943명(50.4%)으로 보고되었다. 제주지역의 경우에는 초·중·고·특수학교 187개교에서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 영양교사가 99명, 영양사가 74명이다⁴²⁾.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 영양관리 및 식생활지도 강화를 중점추진방향으로 정하고 「학교 교육활동 운영계획」에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과 영양, 불량식품근절,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월 2회 이상 관련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토요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식생활교육 국민네트워크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한 한국형 전통식문화계승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식생활교육실을 설치하여 학급별로 담임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식사하면서 식사예절 체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담임교사 임장식사를 통한 밥상머리 교육, 학부모 대상 급식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¹¹⁾.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의 식생활교육은 교과의 실과, 기

술·가정, 체육의 과목을 통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영양(교)사에 의한 식생활교육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비만교육부, 식생활문화부, 편식지도부, 조리실습 등과 급식실 체험, 식사예절, 영양, 전통실습 등의 주제로 식생활수업이 운영되고 있으나 영양(교)사의 업무과중과 수업에 대한 부담 및 교육과정 미편성 등의 원인으로 학교 안에서의 식생활교육은 여러 장애를 가지고 있다⁴³⁾.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행 한 영양·식생활교재, 어린이식생활지침서(보건복지가족부), 녹색 식생활 길라잡이(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식생활교육 자료집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요구와 눈높이에 맞춘 수업지도를 위해서는 부족한 실정이다¹⁵⁾.

박정아 등¹⁹⁾의 연구에 의하면 영양사의 59.5%에서 영양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영양교육 방법에 대해서는 주로 유인물을 이용한 간접 교육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영양교육 미실시 이유로는 업무과다가 7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영양교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한 전은주(2008)²¹⁾의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의 80%가 간접적인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직접교육을 실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교육기회의 부재(36.9%), 급식관리 업무의 과중(33.3%)등 때문이었다. 윤현숙⁴⁴⁾의 연구에서는 대부분 간접교육의 방법(72.4%)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직접교육을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체계적인 교육과정 마련,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 교육시간 확보, 운영자의 인식 등으로 나타나 제도적인 문제의 보완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영양상담

1) 영양상담의 필요성

영양 상담은 현재 영양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바람직한 식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으로 정의되며³⁾ 영양교육에 비해 역동적이며 대면적·상호의사소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⁴⁵⁾.

영양상담은 내담자에게 올바른 영양관련 지식을 제공하고 식습관 및 생활습관을 개선하도록 지도함으로써 영양개선과 질병예방을 도모할 수 있다. 영양 상담에 관한 목표를 설정 할 때에는 내담자와 상담자간의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 후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⁴⁶⁾. 궁극적으로 영양상담의 목표는 상담이 종료 된 이후에도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의 영양관리를 할 수 있도록 습관화하여 바람직한 식생활을 실천하도록 하는데 있다⁴⁵⁾.

최근에는 식품산업과 외식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현대인의 식생활이 나날이 복잡해지면서, 건강에 필요한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난제가 되고 경제적 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평균수명이 증가하면서 만성퇴행성 질환의 발병과 이로 인한 사망이 증가하여 발병 전 예방과 건강증진에 초점을 두게 되었다³⁾⁴⁷⁾.

영양상담은 질병의 치료를 위한 식사지침은 물론 질병 예방의 차원에서 내담자에게 올바른 영양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스스로 적절한 영양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²⁾. 따라서 만성질환의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지역사회와 단체, 개인을 위한 영양상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³⁾.

학교에서의 영양상담은 아동기부터 적절한 식습관을 형성하도록 하여 질병예방 및 영양개선을 도모하는데 중요성이 있다. 학교에서의 식생활지도 및 영양상담은 학교급식과 분리될 수 없고 학생은 급식을 통한 적절한 영양소 공급과 영양교육 및 상담을 통해 영양불균형을 해소하여 편식을 예방하며 비만 등 만성질환을 예방 할 수 있다⁴⁸⁾.

한편, 영양상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담자의 영양학에 관한 전문지식은

물론 인간행위에 대한 깊은 이해, 즉 내담자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 상담관련 기술이 요구되므로 영양(교)사는 상담이론을 갖춰 아동의 잘못된 식습관의 변화를 유도하고, 새로운 식행동을 지속적으로 실천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⁴⁹⁾.

2) 학교 영양상담의 실태

1990년대 이후로 사회 전반적으로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차원에서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초점을 둔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고⁴⁷⁾ 「학교급식법」 제14조(영양상담)에 학교의 장은 식생활에서 기인하는 영양불균형을 시정하고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저체중 및 성장부진, 빈혈, 과체중 및 비만학생 등을 대상으로 영양 상담과 필요한 지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³⁷⁾.

이처럼 영양상담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각 지역별 교육청에서는 학교에서의 영양교육 및 상담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학교 급식법 제18조 1항과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3에 의거하여 학생 식생활 지도 및 영양 상담에 대한 운영평가를 시행하고 있다⁵⁰⁾.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실정에 맞도록 학교홈페이지 및 급식관리실 등에 영양상담실을 설치하여 비만·당뇨·고혈압 등 식사조절을 필요로 하는 학생과 학부모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영양상담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비만학생 식생활개선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체육교사의 운동처방과 영양(교)사의 영양상담, 보건교사의 건강상담을 연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였다¹¹⁾.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양상담은 학교가 주체가 되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정책은 아동이 환경적 변화에 대응하여 건강한 생을 영위하도록 학교에서 영양상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⁵¹⁾.

그러나 여러 원인으로 인해 학생들의 식습관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영양상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아동의 영양문제들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⁵²⁾. 2013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최근 1년 간 영양교육 및 상담 경험률은 7.5%(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 표준화)로 2005년(9.2%)에 비해 감소한 경향

을 보였으며 6-11세는 27.4%, 12-18세는 18.6%로 다른 연령대의 6%미만보다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으나, 아직까지 영양교육 및 상담은 미비하게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⁵³⁾.

이경혜⁵⁴⁾의 연구에서는 학교 영양(교)사들은 시간부족, 제도적 문제, 프로그램 부재와 시설문제 등의 원인으로 영양 상담을 실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미영 등⁹⁾은 영양상담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학교의 협조(22.8%)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효율적인 영양상담 운영을 위한 학계 및 행정계의 지원체계의 개발이 요구되어 진다⁹⁾.

Ⅲ. 연구내용 및 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제주지역 초·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2015년 5월 7일부터 5월14일까지 직접조사와 전자문서, 이메일의 방법으로 총 160부를 배부하여 140부(87.5%)가 회수되었고, 이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2. 조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설문지는 2015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¹⁷⁾ 및 기존의 선행연구^{2,24-25,55)56)}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하였다. 설문지는 조사대상자가 직접 기입법에 의해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설문지의 내용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0문항, 영양(교)사 직무의 중요도 및 수행도 16문항, 식생활교육 21문항, 영양상담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으로 연령, 근무경력, 고용형태, 학력을 조사하였고, 조사대상자의 근무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학교설립유형, 학교형태, 학교급식유형, 급식운영형태, 급식 인원 수, 급식횟수에 대해 조사하였다.

2) 영양(교)사 직무의 중요도 및 수행도

영양(교)사의 직무를 급식관리 영역과 영양·식생활교육 및 영양상담의 3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급식관리 8항목, 영양·식생활교육 5항목, 영양상담 3항목의 총 16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화 하였고, 직무중요도의 측정 척도는 1점: 전혀 중요하지 않다, 2점: 중요하지 않다, 3점: 보통이다, 4점: 중요하다, 5점: 매우 중요하다고 측정하였으며 직무수행도의 측정 척도는 1점: 전혀 수행하지 않는다, 2점: 대체로 하지 않는다, 3점: 보통이다, 4점: 자주 하는 편이다, 5점: 항상 수행한다고 측정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중요도와 직무수행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3) 식생활교육

식생활교육은 식생활교육의 실태, 식생활교육에 대한 인식, 식생활교육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으로 총 3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조사하였으며, 식생활교육 실태에서는 실시여부, 대상별 시행횟수, 운영형태, 실시시간, 수업방법, 교수학습 준비여부, 자료수집 경로, 교육자료, 교직원대상 운영형태, 학부모 대상 운영형태 등으로 10문항, 식생활교육에 대한 인식은 활성화 정도, 적합 시작시기, 효과적 교육시간, 효과적 이용시간, 바람직한 수업방법, 교육 실시에 겪는 어려운 점, 교육 실시를 통한 기대효과의 7문항,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으로는 교수능력 향상 방안, 과중한 급식업무 해결방안, 정기적 식생활교육 운영방안, 학교관리자 및 학부모 관심 향상 방안 4문항으로 총 2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4) 영양상담

영양상담은 영양상담 실태, 영양상담에 대한 인식 및 의견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영양상담 실태에서는 실시여부, 대상별 시행횟수, 운영형태, 소요시간, 상담내용, 대상자 신청절차 및 방식, 상담 장소, 상담도구, 관련자료 수집방법, 연계 실시 여부, 사후관리 여부, 연수경험 여부, 교직원대상 운영형태, 학부모 대상

운영형태 등으로 14문항, 영양 상담에 대한 인식 및 의견으로는 영양상담 활성화 정도, 적합 시작시기, 효과적 소요시간, 영양상담 실시를 통한 기대효과, 효율적 방안의 6문항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자료 분석 및 통계처리

조사된 자료는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 분석 하였고, 각 조사 항목에 대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각 변인간의 관련성은 빈도차이 검증인 경우 χ^2 -test, 평균차이 검증인 경우 t-test, ANOVA를 사용하여 집단 간의 유의성을 살펴보았으며, ANOVA에 대한 사후검증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 사항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연령은 40~49세가 57.9%로 가장 많았고, 30~39세(17.1%), 50세 이상(14.3%), 30세 미만(10.7%)의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 경력은 20년 미만(37.9%), 10년 미만(35.0%), 20년 이상(27.1%)의 순으로 나타났고, 고용형태에 있어서는 영양교사가 67.2%로 영양사(32.8%)보다 많았다. 조사 대상자의 학력은 대학교 졸업(67.9%)이 대학원 이상(32.1%)보다 많이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구 분	N(%)
연령	30세 미만	15(10.7)
	30~39세	24(17.1)
	40~49세	81(57.9)
	50세 이상	20(14.3)
근무 경력	10년 미만	49(35.0)
	10년 이상~20년 미만	53(37.9)
	20년 이상	38(27.1)
고용형태	영양교사	94(67.2)
	영양사	46(32.8)
학력	대학교 졸업	95(67.9)
	대학원이상	45(32.1)
	계	140(100.0)

2) 조사대상자의 근무지 특성

조사대상자의 근무지 특성은 <표 2>와 같다. 학교 설립유형은 국·공립(89.3%)이 사립(10.7%)에 비해 많았고, 학교형태는 초등학교(55.0%), 중학교(22.1%), 고등학교(17.9%), 기타(5.0%)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식 유형은 도시형(55.7%)이 농어촌 및 도서벽지형(44.3%) 보다 많았다. 급식운영 형태에 있어서는 단독관리가 90.7%로 공동관리 및 공동조리(9.3%)보다 많았고, 급식인원수는 500명 미만(57.1%), 1000명 미만(22.9%), 1000명 이상(20.0%)의 순으로 나타났다. 급식횟수의 경우 1일1식(84.3%)이 1일2식·3식(15.7%) 보다 많았다.

<표 2> 조사대상자의 근무지 특성

	구 분	N(%)
학교 설립유형	국·공립	125(89.3)
	사 립	15(10.7)
학교 형태	초등학교	77(55.0)
	중학교	31(22.1)
	고등학교	25(17.9)
	기타	7(5.0)
학교급식 유형	도시형	78(55.7)
	농어촌 및 도서벽지형	62(44.3)
급식운영 형태	단독관리	127(90.7)
	공동관리 및 공동조리	13(9.3)
급식 인원수	500명 미만	80(57.1)
	500 ~ 1000명 미만	32(22.9)
	1000명 이상	28(20.0)
급식횟수	1일 1식	118(84.3)
	1일 2식·3식	22(15.7)
	계	140(100.0)

2. 영양(교)사 직무의 중요도 및 수행도

1) 직무 중요도 및 수행도

영양(교)사의 직무를 급식 관리, 영양·식생활 교육 및 영양상담의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중요도와 수행도를 분석한 결과(표3), 세 개 영역 모두 중요도가 수행도에 비해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0.001$), 중요도는 급식 관리 영역이 5점 만점에 대해 4.72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영양·식생활 교육 4.37점, 영양상담 4.24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행도에 있어서도 급식 관리(4.48점), 영양·식생활 교육(3.70점), 영양상담(3.22점)의 순으로 나타나 영양·식생활 교육과 영양상담은 급식 관리에 비해 중요도와 수행도가 모두 낮게 나타났고, 이는 서울지역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²⁾에서도 영양교육 및 상담 업무는 급식업무에 비해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낮고 수행도 또한 낮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3> 직무 중요도 및 수행도

구 분	중요도 ¹⁾	수행도 ²⁾	Mean±S.D.
			t-value
급식 관리	4.72±0.33	4.48±0.49	6.918***
영양·식생활 교육	4.37±0.55	3.70±0.65	11.275***
영양상담	4.24±0.64	3.22±0.76	15.147***

N=140

1) 5점 척도(1: 전혀 중요하지 않다, 5: 매우 중요 하다)

2) 5점 척도(1: 전혀 수행 하지 않는다, 5: 항상 수행 한다)

*** : $p<0.001$

영역별 세부항목의 직무 중요도 및 수행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16개 세부항목에 대한 중요도 및 수행도를 분석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중요도가 수행도에 비해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급식관리 영역의 중요도는 위생관리(4.89점), 수행도는 식재료구매 및 검수(4.76점)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영양·식생활교육 영역의 중요도는 학생 대상교육(4.59점), 수행도는 교육 계획수립(4.00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실시 대상에 따른 중요도와 수행도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영양상담 영역의 중요도는 학생대상 영양상담(4.44점), 학부모대상 영양상담(4.21점), 교직원대상 영양상담(4.08점)의 순으로 나타났고, 수행도는 학생대상 영양상담(3.63점), 교직원대상 영양상담(3.04점), 학부모대상 영양상담(2.99점)의 순으로 나타나 중요도와 수행도 간의 다소 차이가 있었다.

<표 4> 영역별 직무 중요도 및 수행도

구분	항목	중요도 ¹⁾	수행도 ²⁾	Mean ± S.D.
				t-value
급식 관리	식단(영양)관리	4.88 ± 0.32	4.61 ± 0.63	5.267**
	식재료 구매 및 검수	4.85 ± 0.39	4.76 ± 0.47	2.165*
	조리작업 및 배식관리	4.74 ± 0.47	4.54 ± 0.60	3.651**
	급식시설 및 기기관리	4.57 ± 0.53	4.17 ± 0.74	6.889**
	위생관리	4.89 ± 0.31	4.62 ± 0.54	6.168**
	인력관리	4.63 ± 0.54	4.29 ± 0.75	6.198**
	급식 품질관리	4.73 ± 0.46	4.54 ± 0.61	4.498**
	원가 및 사무관리	4.51 ± 0.61	4.31 ± 0.72	3.373**
	평균	4.72 ± 0.33	4.48 ± 0.49	6.918***
영양· 식생활	교육 계획수립	4.52 ± 0.58	4.00 ± 0.79	7.545**
	교육 자료개발 및 제작, 배부	4.34 ± 0.66	3.80 ± 0.84	6.914**
	학생 대상교육	4.59 ± 0.56	3.92 ± 0.82	8.976**
	교직원 대상 교육	4.19 ± 0.78	3.35 ± 0.88	10.502**
교육	학부모 대상 교육	4.24 ± 0.68	3.47 ± 0.80	10.944**
	평균	4.37 ± 0.55	3.70 ± 0.65	11.275***
영양 상담	학생대상 영양상담	4.44 ± 0.64	3.63 ± 0.78	12.450**
	교직원대상 영양상담	4.08 ± 0.81	3.04 ± 0.95	12.175**
	학부모대상 영양상담	4.21 ± 0.74	2.99 ± 0.89	14.712**
	평균	4.24 ± 0.64	3.22 ± 0.76	15.147***

N=140

1) 5점 척도(1: 전혀 중요하지 않다, 5: 매우 중요 하다)

2) 5점 척도(1: 전혀 수행 하지 않는다, 5: 항상 수행 한다)

* : p<0.05 , ** : p<0.01, *** : p<0.001

2) 일반사항에 따른 직무중요도

(1) 급식관리 영역의 중요도

조사대상의 일반사항에 따른 급식관리 영역의 중요도는 <표 5>에 나타내었다. 고용형태에 따른 급식관리 중요도를 비교한 결과 영양사(4.96점)의 위생관리 중요도 점수가 영양교사(4.86점)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 < 0.05$). 이는 영양(교)사의 직무 수행도와 만족도를 조사한 연구⁵⁷⁾에서도 학교회계직의 위생유지관리의 중요도가 영양교사보다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급식유형의 경우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모든 항목에서 도시형이 농어촌·도서벽지형에 비해 중요도 점수가 높았고 근무경력, 학교형태, 급식횟수에 따른 중요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5〉 일반사항에 따른 급식관리 영역의 중요도

		Mean±S.D.							
구분	식단(영양)관리	식재료구매 및 검수	조리작업 및 배식관리	급식시설 및 기기관리	위생관리	인력관리	급식품질관리	원가 및 사무관리	
근무경력	10년 미만(n=49)	4.88 ±0.331	4.84 ±0.426	4.67 ±0.474	4.63 ±0.566	4.88 ±0.331	4.63 ±0.487	4.73 ±0.446	4.55 ±0.614
	20년 미만(n=53)	4.89 ±0.320	4.83 ±0.427	4.77 ±0.505	4.60 ±0.494	4.92 ±0.267	4.64 ±0.522	4.70 ±0.503	4.42 ±0.663
	20년 이상(n=38)	4.87 ±0.343	4.89 ±0.311	4.76 ±0.431	4.45 ±0.555	4.87 ±0.343	4.61 ±0.638	4.76 ±0.431	4.51 ±0.617
	F-value	0.035	0.332	0.652	1.430	0.450	0.051	0.223	0.969
고용형태	영양교사(n=94)	4.88±0.323	4.87±0.335	4.76±0.456	4.54±0.542	4.86±0.347	4.62±0.570	4.73±0.468	4.52±0.617
	영양사(n=46)	4.87±0.341	4.80±0.500	4.70±0.511	4.63±0.532	4.96±0.206	4.65±0.482	4.72±0.455	4.48±0.623
	t-value	0.227	0.835	0.698	-0.907	-2.019*	-0.360	0.200	0.386
학교형태	초등학교(n=77)	4.87±0.339	4.87±0.375	4.74±0.470	4.58±0.542	4.90±0.307	4.61±0.566	4.74±0.470	4.55±0.575
	중학교(n=31)	4.87±0.341	4.74±0.514	4.77±0.497	4.58±0.502	4.90±0.301	4.71±0.461	4.71±0.461	4.42±0.672
	고등학교(n=25)	4.92±0.277	4.92±0.277	4.64±0.490	4.52±0.586	4.88±0.332	4.60±0.577	4.72±0.458	4.57±0.535
	기타(n=7)	4.86±0.378	4.86±0.378	4.86±0.378	4.57±0.535	4.86±0.378	4.57±0.535	4.71±0.488	4.51±0.617
	F-value	0.163	1.097	0.558	0.092	0.058	0.306	0.038	0.344
급식유형	도시형 (n=78)	4.91 ±0.288	4.86 ±0.386	4.76 ±0.488	4.59 ±0.495	4.90 ±0.305	4.64 ±0.534	4.76 ±0.461	4.51 ±0.659
	농어촌 · 도서벽지형(n=62)	4.84 ±0.371	4.84 ±0.413	4.71 ±0.458	4.55 ±0.592	4.89 ±0.319	4.61 ±0.554	4.69 ±0.465	4.50 ±0.565
	t-value	1.250	0.299	0.578	0.450	0.195	0.305	0.798	0.122
급식횟수	1일 1식(n=118)	4.87 ±0.335	4.84 ±0.413	4.75 ±0.475	4.58 ±0.530	4.89 ±0.314	4.62 ±0.553	4.73 ±0.465	4.51 ±0.610
	1일 2식 · 3식(n=22)	4.91 ±0.294	4.91 ±0.294	4.68 ±0.477	4.55 ±0.596	4.91 ±0.294	4.68 ±0.477	4.73 ±0.456	4.50 ±0.673
	t-value	-0.474	-0.760	0.580	0.246	-0.266	-0.501	0.014	0.059

N=140

* : p < 0.05

(2) 영양·식생활교육 영역의 중요도

조사대상의 일반사항에 따른 영양·식생활교육 영역의 중요도는 <표 6>에 제시하였다. 고용형태에서는 영양교사가 영양사에 비해 중요도의 점수가 높았으며 특히 자료개발 및 제작, 배부의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p<0.05), 학교형태에서는 교직원대상 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에서 초등학교의 중요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급식횟수의 경우에도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모든 문항에서 1일1식 학교의 중요도 점수가 2·3식 학교에 비해 높았고, 영양(교)사의 근무경력, 급식유형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6> 일반사항에 따른 영양·식생활교육 영역의 중요도

		Mean±S.D.				
구분	교육계획 수립	자료개발 및 제작, 배부	학생 대상 교육	교직원 대상 교육	학부모 대상교육	
근무 경력	10년 미만(n=49)	4.43±0.612	4.33±0.689	4.59±0.574	4.18±0.808	4.27±0.700
	20년 미만(n=53)	4.57±0.605	4.38±0.713	4.57±0.605	4.21±0.769	4.26±0.738
	20년 이상(n=38)	4.58±0.500	4.29±0.565	4.63±0.489	4.16±0.789	4.18±0.609
F-value		0.967	0.199	0.149	0.044	0.187
고용 형태	영양교사 (n=94)	4.59±0.537	4.43±0.558	4.66±0.476	4.23±0.725	4.31±0.605
	영양사 (n=46)	4.39±0.649	4.15±0.816	4.46±0.690	4.09±0.890	4.11±0.823
	t-value	1.753	2.325*	1.798	1.045	1.465
학교 형태	초등학교(n=77)	4.61±0.564	4.38±0.670	4.62±0.539	4.17±0.768	4.29±0.666
	중학교(n=31)	4.39±0.615	4.32±0.702	4.61±0.558	4.35±0.839	4.23±0.717
	고등학교(n=25)	4.48±0.586	4.28±0.678	4.52±0.653	4.00±0.816	4.12±0.781
	기타(n=7)	4.29±0.488	4.14±0.378	4.43±0.535	4.29±0.488	4.29±0.488
	F-value	1.601	0.352	0.424	1.001	0.376
급식 유형	도시형 (n=78)	4.56±0.594	4.36±0.664	4.53±0.597	4.17±0.828	4.23±0.755
	농어촌·도시벽지형(n=62)	4.47±0.564	4.31±0.667	4.68±0.505	4.21±0.727	4.26±0.599
	t-value	0.974	0.464	-1.598	-0.322	-0.239
급식 횟수	1일 1식(n=118)	4.55±0.579	4.36±0.662	4.62±0.538	4.22±0.775	4.28±0.678
	1일 2식·3식(n=22)	4.36±0.581	4.18±0.664	4.45±0.671	4.00±0.816	4.05±0.722
	t-value	1.392	1.186	1.084	1.214	1.473

N= 140

* : p<0.05

(3) 영양상담 영역의 중요도

조사대상의 일반사항에 따른 영양상담 영역의 중요도는 <표 7>에 제시하였으며, 영양상담 영역의 중요도와 일반사항과의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였다.

근무경력에 따른 중요도는 경력이 길수록 학생과 교직원대상 영양상담을 중요하게 인식하였고, 고용형태의 경우 영양교사의 중요도 점수가 영양사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급식유형에서는 도시형이 농어촌·도서벽지형에 비해, 급식횟수는 1일1식 학교가 2·3식 학교에 비해 중요하게 인식하였으나 이들 모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7> 일반사항에 따른 영양상담 영역의 중요도

		Mean±S.D.		
구 분	학생 대상 영양상담	교직원대상 영양상담	학부모대상 영양상담	
근무 경력	10년 미만(n=49)	4.43±0.677	4.00±0.0890	4.27±0.758
	20년 미만(n=53)	4.40±0.716	4.11±0.751	4.21±0.793
	20년 이상(n=38)	4.50±0.507	4.13±0.811	4.16±0.679
	F-value	0.285	0.353	0.222
고용 형태	영양교사(n=94)	4.51±0.563	4.11±0.796	4.27±0.706
	영양사(n=46)	4.28±0.779	4.02±0.856	4.11±0.823
	t-value	1.771	0.576	1.171
학교 형태	초등학교(n=77)	4.56±0.596	4.10±0.836	4.27±0.719
	중학교(n=31)	4.29±0.739	4.06±0.854	4.16±0.820
	고등학교(n=25)	4.28±0.678	3.92±0.759	4.08±0.759
	기타(n=7)	4.29±0.488	4.43±0.535	4.29±0.756
	F-value	2.093	0.771	0.494
급식 유형	도시형 (n=78)	4.45±0.677	4.13±0.843	4.26±0.746
	농어촌·도서벽지형(n=62)	4.42±0.615	4.02±0.779	4.16±0.751
	t-value	0.265	0.808	0.747
급식 횟수	1일 1식(n=118)	4.47±0.637	4.11±0.814	4.25±0.742
	1일 2식·3식(n=22)	4.23±0.685	3.91±0.811	4.00±0.756
	t-value	1.653	1.064	1.472

N= 140

3) 일반사항에 따른 직무수행도

(1) 급식관리 영역의 수행도

조사대상의 일반사항에 따른 급식관리 영역의 수행도는 <표 8>에 나타내었다. 근무경력에 따라 조리작업 및 배식관리의 문항에서 경력 20년 미만(4.68점)과 20년 이상(4.66점)이 10년 미만(4.29점)보다 높은 점수를 보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 < 0.01$), 급식유형에서는 전반적으로 도시형이 농어촌·도서벽지형 보다 높은 수행도를 보이며, 식재료구매 및 검수에서 도시형 4.83점, 농어촌·도서벽지형 4.66점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고용형태에 있어서는 인력관리를 제외한 나머지 문항에서 영양사가 영양교사에 비해 수행도의 점수가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류경⁵⁷⁾의 연구에서도 학교 회계직이 영양교사보다 구매관리, 위생관리, 조리 및 배식관리에서 수행도가 높게 나타나 유사하였고, 신왕미의 연구⁵⁶⁾에서는 영양사가 영양교사에 비해 낮은 수행도를 보여 본 연구결과와 다르게 나타났다.

급식횟수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1일1식이 2·3식에 비해 모든 문항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고 고용형태, 학교형태에 따른 수행도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8> 일반사항에 따른 급식관리 영역의 수행도

		Mean±S.D.							
구분	식단(영양)관리	식재료구매 및 검수	조리작업 및 배식관리	급식시설 및 기기관리	위생관리	인력관리	급식품질관리	원가 및 사무관리	
근무경력	10년 미만(n=49)	4.59 ±0.674	4.69 ±0.508	4.29 ±0.677 ^a	4.12 ±0.754	4.55 ±0.542	4.22 ±0.715	4.45 ±0.679	4.27 ±0.700
	20년 미만(n=53)	4.62 ±0.627	4.79 ±0.454	4.68 ±0.547 ^b	4.26 ±0.711	4.66 ±0.553	4.38 ±0.713	4.60 ±0.631	4.32 ±0.779
	20년 이상(n=38)	4.61 ±0.595	4.79 ±0.474	4.66 ±0.481 ^b	4.11 ±0.798	4.66 ±0.534	4.24 ±0.852	4.58 ±0.500	4.34 ±0.708
	F-value	0.030	0.658	7.016 ^{**}	0.657	0.631	0.633	0.892	0.132
고용형태	영양교사(n=94)	4.60±0.610	4.72±0.495	4.53±0.617	4.14±0.756	4.61±0.572	4.29±0.742	4.53±0.617	4.28±0.724
	영양사(n=46)	4.63±0.679	4.83±0.437	4.54±0.585	4.24±0.736	4.65±0.482	4.28±0.779	4.57±0.620	4.37±0.741
	t-value	-0.304	-1.196	-0.106	-0.747	-0.468	0.034	-0.299	-0.708
학교형태	초등학교(n=77)	4.68±0.549	4.75±0.462	4.53±0.598	4.27±0.681	4.70±0.488	4.39±0.672	4.60±0.591	4.33±0.698
	중학교(n=31)	4.48±0.769	4.77±0.497	4.68±0.475	4.16±0.779	4.61±0.495	4.26±0.729	4.61±0.558	4.23±0.717
	고등학교(n=25)	4.60±0.645	4.76±0.523	4.40±0.764	3.96±0.935	4.48±0.653	4.12±0.971	4.40±0.764	4.32±0.852
	기타(n=7)	4.43±0.787	4.71±0.488	4.43±0.535	3.86±0.378	4.29±0.756	3.86±0.690	4.14±0.378	3.86±0.690
	F-value	0.879	0.033	1.063	1.567	2.064	1.692	1.797	1.262
급식유형	도시형 (n=78)	4.63 ±0.561	4.83 ±0.375	4.53 ±0.618	4.23 ±0.737	4.63 ±0.561	4.31 ±0.761	4.55 ±0.617	4.36 ±0.755
	농어촌·도시벽지형(n=62)	4.58 ±0.714	4.66 ±0.571	4.55 ±0.592	4.10 ±0.762	4.61 ±0.523	4.26 ±0.745	4.53 ±0.620	4.24 ±0.694
	t-value	0.442	2.047 [*]	-0.220	1.052	0.165	0.387	0.181	0.944
급식횟수	1일 1식(n=118)	4.62 ±0.626	4.76 ±0.466	4.58 ±0.560	4.22 ±0.706	4.66 ±0.510	4.32 ±0.727	4.58 ±0.575	4.31 ±0.713
	1일 2식·3식(n=22)	4.55 ±0.671	4.73 ±0.550	4.27 ±0.767	3.91 ±0.921	4.41 ±0.666	4.09 ±0.868	4.32 ±0.780	4.27 ±0.827
	t-value	0.498	0.318	1.819	1.805	1.684	1.327	1.528	0.240

N= 140

* : p< 0.05 , ** : p<0.01, a,b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b)

(2) 영양·식생활 교육 영역의 수행도

조사대상의 일반사항에 따른 영양·식생활교육의 수행도는 <표 9>에 나타내었다. 학교형태의 경우 초등학교(3.53점)의 근무자가 기타(2.86점)학교의 근무자에 비해 교직원 대상 교육을 더 많이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급식횟수에 따른 수행도는 1일 1식 학교가 2·3식 학교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계획 수립, 학생대상 교육, 교직원 대상교육, 학부모 대상교육의 문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5$). 이는 2·3식 학교의 경우 업무과중으로 인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영양·식생활교육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사료된다. 고용형태의 경우 영양교사가 영양사에 비해 수행도의 점수가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근무경력, 급식유형에 있어서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9> 일반사항에 따른 영양·식생활교육 영역의 수행도

		Mean±S.D.				
구 분	교육계획 수립	자료개발 및 제작, 배부	학생 대상 교육	교직원 대상 교육	학부모 대상교육	
근무경력	10년 미만(n=49)	3.94 ±0.852	3.65 ±0.805	3.90 ±0.763	3.37 ±0.929	3.51 ±0.893
	20년 미만(n=53)	4.08 ±0.781	3.94 ±0.886	4.04 ±0.784	3.43 ±0.797	3.51 ±0.775
	20년 이상 (n=38)	3.97 ±0.753	3.79 ±0.811	3.92 ±0.941	3.21 ±0.935	3.37 ±0.751
	F-value	0.401	1.532	1.101	0.724	0.420
고용형태	영양교사 (n=94)	4.03±0.796	3.89±0.823	4.01±0.823	3.36±0.949	3.52±0.839
	영양사 (n=46)	3.93±0.800	3.61±0.856	3.74±0.801	3.33±0.732	3.37±0.741
	t-value	0.677	1.900	1.849	0.224	1.043
학교형태	초등학교(n=77)	4.16±0.779	3.95±0.857	4.01±0.786	3.53±0.926 ^b	3.64±0.887
	중학교 (n=31)	3.90±0.870	3.71±0.783	3.97±0.912	3.29±0.824 ^{ab}	3.32±0.748
	고등학교 (n=25)	3.72±0.678	3.60±0.866	3.68±0.802	3.00±0.707 ^{ab}	3.20±0.57
	기타(n=7)	3.41±0.56	3.29±0.488	3.57±0.787	2.86±0.690 ^a	3.29±0.488
	F-value	2.553	2.321	1.506	3.358 [*]	2.564
급식유형	도시형 (n=78)	4.04 ±0.860	3.85 ±0.374	3.92 ±0.849	3.45 ±0.847	3.54 ±0.801
	농어촌·도시벽지형(n=62)	3.95 ±0.711	3.74 ±0.767	3.92 ±0.795	3.23 ±0.913	3.39 ±0.817
	t-value	0.640	0.727	0.026	1.494	1.101
급식횟수	1일 1식(n=118)	4.07 ±0.803	3.86 ±0.850	3.98 ±0.827	3.41 ±0.899	3.53 ±0.834
	1일 2식·3식(n=22)	3.64 ±0.658	3.50 ±0.740	3.59 ±0.734	3.05 ±0.722	3.18 ±0.588
	t-value	2.373 [*]	1.837	2.076 [*]	2.067 [*]	2.336 [*]

N= 140

* : $p < 0.05$, a,b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b)

(3) 영양상담 영역의 수행도

조사대상의 일반사항에 따른 영양상담 영역의 수행도는 <표 10>과 같다. 고용형태의 경우 대체적으로 영양교사의 수행도 점수가 영양사에 비해 높았으며, 교직원 대상 영양상담에서 영양교사 3.16점, 영양사 2.08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05$). 학교형태는 초등학교, 중학교(각 3.14, 3.06점)에서 기타(2.29점)에 비해 학부모대상 영양상담의 수행도가 높게 나타났고($p < 0.05$), 급식횟수 1일1식 학교가 2·3식 학교에 비해 높은 수행도를 보였으며, 학부모대상 영양상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반면, 근무경력, 급식유형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10> 일반사항에 따른 영양상담 영역의 수행도

		Mean±S.D.		
	구분	학생대상 영양상담	교직원 대상 영양상담	학부모대상 영양상담
근무경력	10년 미만(n=49)	3.59±0.762	2.82±1.034	2.82±0.972
	20년 미만(n=53)	3.70±0.822	3.13±0.810	3.08±0.829
	20년 이상 (n=38)	3.58±0.758	3.21±1.018	3.11±0.863
	F-value	0.338	2.217	1.494
고용형태	영양교사 (n=94)	3.68±0.779	3.16±1.009	3.05±0.943
	영양사 (n=46)	3.52±0.781	2.08±0.806	2.87±0.778
	t-value	1.134	2.084*	1.143
학교형태	초등학교(n=77)	3.71±0.792	3.18±0.956	3.14±0.869 ^b
	중학교 (n=31)	3.65±0.755	3.10±0.831	3.06±0.854 ^b
	고등학교 (n=25)	3.44±0.768	2.64±1.075	2.64±0.907 ^{ab}
	기타(n=7)	3.29±0.756	2.71±0.756	2.29±0.756 ^a
	F-value	1.258	2.387	3.762*
급식유형	도시형 (n=78)	3.56±0.815	2.99±0.947	2.92±0.894
	농어촌·도시벽지형(n=62)	3.71±0.733	3.11±0.977	3.08±0.893
	t-value	-1.097	-0.770	-1.037
급식횟수	1일 1식 (n=118)	3.67±0.796	3.11±0.913	3.07±0.874
	1일 2식·3식(n=22)	3.41±0.666	2.68±1.129	2.59±0.908
	t-value	1.442	1.943	2.335*

N= 140

* : $p < 0.05$, a,b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b)

3. 학교에서의 영양·식생활교육

1) 영양·식생활교육의 실태

조사대상자의 근무 학교에서 영양·식생활교육 실시여부를 조사한 결과는 <표 11>에 제시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92.1%가 영양·식생활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충북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²⁵⁾에서는 식생활교육 실시율이 58.9%로 나타났고, 경기지역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영양교육 실시율을 조사한 결과²⁴⁾ 실시율이 77.2%로 상승하였으며 경남지역 영양교육 실태를 조사한 연구¹⁶⁾에서는 조사대상자의 100%가 영양교육을 실시한다고 응답하여 이전에 비해 영양·식생활 교육 실시율이 전체적으로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11> 영양·식생활교육 실시여부

구 분	항 목	N(%)
영양·식생활교육 실시여부	예	129(92.1)
	아니오	11(7.9)
계		140(100.0)

대상별 영양·식생활 교육 횟수를 조사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전체적인 교육 횟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월3.71회로 가장 많았고, 학부모(월2.17회), 교직원(월1.87회)의 순으로 나타나 실시 대상에 따른 수행도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학생 대상 교육의 경우 근무경력 20년 이상(월5.50회)이 10년 미만과 20년 미만(각2.47회, 3.58회)에 비해 교육 횟수가 많았으며($p < 0.01$), 고용형태에 있어서는 영양교사(월4.23회)가 영양사(월2.65회)에 비해 학생 대상교육을 더 많

이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홍영선²⁴⁾의 연구에서도 영양교사(79.1%)가 영양사(15.8%)에 비해 영양교육 실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급식인원수는 1000명 이상의 학교에서 교육횟수가 많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학교형태, 급식유형, 급식횟수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12> 대상별 영양·식생활 교육 횟수

구분	항목 ¹⁾	Mean±S.D.		
		학생	학부모	교직원
근무경력	10년 미만(n=40)	2.47±1.73 ^a	1.73±1.53	1.57±1.47
	10년~20년 미만(n=53)	3.58±3.71 ^a	2.79±3.77	2.15±2.90
	20년 이상(n=38)	5.50±7.10 ^b	1.87±1.43	1.87±3.18
	F-value	4.974 ^{**}	2.444	0.637
고용형태	영양교사(n=94)	4.23±5.41	2.21±2.99	1.87±2.94
	영양사(n=46)	2.65±1.60	2.09±1.72	1.87±1.62
	t-value	2.605 [*]	0.264	0.006
학교형태	초등학교(n=77)	3.68±4.35	2.31±2.30	1.87±2.23
	중학교(n=31)	4.42±5.72	1.90±2.58	2.39±4.12
	고등학교(n=25)	2.96±2.62	2.28±3.78	1.52±0.82
	기 타(n=7)	4.00±7.11	1.43±1.39	0.86±0.69
	F-value	0.698	0.772	0.431
급식유형	도시형(n=78)	3.96±4.76	2.22±2.71	1.86±2.65
	농어촌 및 도서벽지형(n=62)	3.40±4.36	2.11±2.56	1.89±2.51
	t-value	0.714	0.233	-0.064
급식인원수	500명 미만(n=80)	3.29±3.90	2.08±2.38	1.74±2.293
	500~1000명 미만(n=32)	3.25±3.46	1.78±1.03	1.56±0.878
	1000명 이상(n=28)	5.46±6.77	2.89±4.14	2.61±4.166
	F-value	2.607	1.462	1.482
급식횟수	1일 1식(n=118)	3.90±4.85	2.14±2.30	1.95±2.78
	1일 2·3식(n=22)	2.73±2.54	2.36±4.03	1.45±0.85
	t-value	1.100	-0.371	0.823
	전체(n=140)	3.71±4.58	2.17±0.26	1.87±2.58

N=129

1) 교육횟수/월

* : $p < 0.05$, ** : $p < 0.01$, a,b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 < b$)

(1) 학생 대상 영양·식생활교육

영양·식생활교육 운영형태에 따른 현황은 <표 13>에 제시하였으며, 직접형태에서는 배식관리와 편식교정, 식사예절 등 급식지도(87.5%)를 실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담임교사 임장식사를 통한 밥상머리 교육(34.7%), 창의적 체험활동(조리 실습반, 식생활 문화반 등)을 이용한 교육(22.9%), 전통식문화 계승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교육(22.4%), 영양·식생활 교재를 통한 교육(20.1%), 관련교과와 연계한 교육(10.0%), 식생활교육실을 이용한 교육(4.6%) 순으로 나타났다. 간접형태에 있어서 가정통신문을 통한 교육은 96.8%, 학교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한 교육은 96.1%로 조사대상자 대부분이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영양교육 실태를 조사한 연구들²⁾⁴⁾¹⁶⁾¹⁸⁾에서도 교육 방법으로 학교 홈페이지나 가정통신문을 통한 교육이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고, 아직까지는 간접형태의 방법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간접형태의 교육은 아동의 지식, 태도의 변화까지 유도하기 힘들고 효과도 적어서²³⁾⁵⁸⁾ 다양한 형태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영양·식생활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13> 영양·식생활교육 운영형태에 따른 현황

구 분	항 목 ¹⁾	N(%)
직접형태	배식관리와 편식교정, 식사예절 등 급식지도	113(87.5)
	담임교사 임장식사를 통한 밥상머리 교육	56(34.7)
	창의적 체험활동(조리 실습반, 식생활문화반 등)을 이용한 교육	37(22.9)
	관련교과(실과, 기술·가정 등)와 연계한 교육	13(10.0)
	전통식문화 계승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교육	29(22.4)
	영양·식생활 교재를 통한 교육	26(20.1)
	식생활교육실을 이용한 교육	6(4.6)
	가정통신문을 통한 교육	125(96.8)
간접형태	학교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한 교육	124(96.1)

N=129

1) 다중응답

직접형태의 영양·식생활교육 현황을 조사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직접형태 식생활교육 실시시간은 창의적 체험활동(특별, 재량활동 포함)시간이 54.1%로 가장 많았고, 급식시간(25.0%), 관련교과(실과, 기술·가정 등)수업시간(15.3%), 기타(4.2%), 방과 후 시간(1.4%)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남지역 영양(교)사의 영양교육 실태를 조사한 연구¹⁶⁾에서도 재량활동 시간을 이용한 수업(68.5%)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기 지역의 연구⁵⁹⁾에서도 재량활동 시간에 영양교육을 실시한다는 응답이 72.9%로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직접형태의 수업방법은 강의가 59.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실습(31.9%), 기타(7.0%), 소집단 토의(1.4%) 순으로 나타났고 박소현²⁾, 정난희 등⁶⁰⁾의 연구에서도 영양교육의 주된 수업방법으로 강의가 높게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수업 시 사용하는 교육 자료는 유인물·교과서(33.3%), 슬라이드(29.2%), 그림·사진(20.8%), 기타(13.9%), 모형·실물(2.8%)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김명실 등²⁵⁾의 연구에서도 주로 사용하는 매체는 인쇄매체로 조사되어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지도계획 및 교수학습 자료 준비여부는 조사 대상자의 83.3%가 식생활교육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수 학습 자료의 수집경로는 영양사 전문사이트 자료(31.7%)를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직접제작(23.3%), 동료 영양(교)사의 정보교환(21.7%), 관련 지침서(15.0%), 관련협회(5.0%), 기타(3.3%)순으로 나타났다.

<표 14> 직접형태 영양·식생활교육의 현황

구 분	항 목	N(%)
실시시간	관련교과(실과, 기술·가정 등)수업시간	11(15.3)
	방과 후 시간	1(1.4)
	급식시간	18(25.0)
	창의적 체험활동(특별, 재량활동 포함)시간	39(54.1)
	기타	3(4.2)
수업방법	강의	43(59.7)
	소집단 토의	1(1.4)
	실습	23(31.9)
	기타	5(7.0)
수업 시 사용하는 교육자료	그림·사진	15(20.8)
	유인물·교과서	24(33.3)
	모형·실물	2(2.8)
	슬라이드	21(29.2)
	기 타	10(13.9)
지도계획 및 교수학습 자료 준비여부	예	60(83.3)
	아니오	12(16.7)
교수 학습자료 수집경로 ¹⁾	직접제작	14(23.3)
	관련 지침서	9(15.0)
	영양사전문사이트 자료(영양사 도우미 등)	19(31.7)
	관련협회(대한영양사 협회 등)	3(5.0)
	동료 영양(교)사와의 정보교환	13(21.7)
기 타	2(3.3)	

N=72

1) N= 60, 지도계획 및 교수 학습 자료를 준비하는 경우에만 응답한 결과임.

(2)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영양·식생활교육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 운영형태는 <표 15>와 같다.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학교홈페이지를 통한 교육(77.6%), 교원연수나 회의 실시 시 교육(56.0%), 관련책자(홍보물)배포(20.8%), 담임이나 교과교사에게 수업을 위한 교육자료 제공(1.6%) 순으로 나타났고, 학부모 대상 교육은 학교홈페이지를 통한 교육이 86.5%로 가장 많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한 교육(83.3%), 교내행사를 통한 교육(18.2%),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실시 시 교육(9.5%)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소현의 연구⁵⁵⁾에서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학교홈페이지를 통한 교육’이 연 14.26회로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표 15>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교육운영형태

구분	항목 ¹⁾	N(%)
교직원 ²⁾	관련책자(홍보물)배포	26(20.8)
	학교홈페이지를 통한 교육	97(77.6)
	교원연수나 회의 실시 시 교육	70(56.0)
	담임이나 교과교사에게 수업을 위한 교육자료 제공	2(1.6)
학부모 ³⁾	가정통신문을 통한 교육	105(83.3)
	학교홈페이지를 통한 교육	109(86.5)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실시 시 교육	12(9.5)
	교내행사를 통한 교육	23(18.2)

1) 다중응답

2) N=125

3) N=126

2) 영양·식생활교육에 대한 인식

영양·식생활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사·분석한 결과는 <표 16>~<표17>에 제시하였다. 영양·식생활교육 활성화 정도는 2.86점으로 보통 이하의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교육시작 적합 시기는 초등학교 저학년(85.0%), 초등학교 고학년(12.1%), 기타(2.1%), 고등학교(0.7%)의 순으로 나타나 식습관이 형성되기 이전에 영양·식생활 교육을 실시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효과적인 교육 시간은 월1~3시간(55.7%), 주당 1~2시간(38.6%), 주당 3~4시간(3.6%), 학기당 3시간 미만(2.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효과적인 이용시간으로는 관련교과(실과, 기술·가정 등)수업시간(47.1%), 창의적 체험활동(특별, 재량활동 포함)시간(44.3%)이 높게 나타났고, 급식시간(6.4%), 방과 후 시간(1.4%), 기타(0.7%)순으로 나타났다. 바람직한 수업방법으로는 실습이44.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강의(25.0%), 소집단토의(18.6%), 역할극(6.4%), 기타(5.7%)순으로 나타났다.

<표 16> 영양·식생활교육에 대한 인식 I

N= 140

구 분	항 목	N(%)
영양·식생활교육 활성화 정도		2.86±0.82 ¹⁾
교육시작 적합시기	초등학교 저학년	119(85.0)
	초등학교 고학년	17(12.1)
	중학교	0(0.0)
	고등학교	1(0.7)
	기타	3(2.1)
효과적인 교육시간	주당1~2시간	54(38.6)
	주당3~4시간	5(3.6)
	월1~3시간	78(55.7)
	학기당 3시간 미만	3(2.1)
효과적인 이용시간	관련교과(실과, 기술·가정 등)수업시간	66(47.1)
	방과 후 시간	2(1.4)
	급식시간	9(6.4)
	창의적 체험활동(특별, 재량활동 포함)시간	62(44.3)
	기타	1(0.7)
바람직한 수업방법	강의	35(25.0)
	소집단토의	26(18.6)
	역할극	9(6.4)
	실습	62(44.3)
	기타	8(5.7)

1) Mean±S.D. , 5점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

교육 실시에 겪는 어려운 점은 과중한 급식 및 행정업무(4.36점), 표준화된 지도안 및 지침서 부족(4.06점), 식생활교육 과정의 체계화 부족(4.00점), 정규수업시간의 부재(3.94점)순으로 나타나 영양(교)사들은 과중한 급식 및 행정업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경남지역의 영양교육 실태를 조사한 연구²³⁾에서도 직접적 영양교육을 실시하지 못하는 이유로 급식관리 업무 과중(34.2%)이 가장 많았으며,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²⁰⁾에서는 제

도적 문제(62.5%), 업무과다로 인한 시간부족(62%)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교육실시를 통한 기대효과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효과적이다(4점)’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바른 식습관 형성(4.29점), 편식교정(4.15점), 올바른 식품선택(4.14점), 성장 발육 및 건강유지(4.06점), 식품(잔반)으로 인한 환경문제점 인식(4.01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7> 영양·식생활교육에 대한 인식 II

N= 140

구 분	항 목	Mean±S.D.
교육 실시에 겪는 어려운 점 ¹⁾	전문지식 부족	3.00±0.84
	교수법 미숙	3.64±0.85
	과중한 급식 및 행정업무	4.36±0.75
	교육매체(기자재)의 부족	3.74±0.87
	학교관리자의 인식부족	3.51±0.97
	표준화된 지도안 및 지침서 부족	4.06±0.78
	수업계획 누락	3.39±1.02
	식생활교육 과정의 체계화 부족	4.00±0.73
	정규 수업시간의 부재	3.94±0.76
	교육예산 부족	3.62±0.90
	연수 및 재교육의 활성화 부족	3.86±0.81
교육 실시를 통한 기대효과 ²⁾	성장 발육 및 건강유지	4.06±0.63
	바른 식습관 형성	4.29±0.56
	편식교정	4.15±0.64
	올바른 식품선택	4.14±0.68
	식품(잔반)으로 인한 환경문제점 인식	4.01±0.66

1)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

2)5점 척도(1: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 5: 매우 효과적이다)

3) 영양·식생활교육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

영양·식생활교육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은 <표 18>과 같다. 교수능력 향상 방안으로는 학습자료 개발이 34.4%로 가장 높았고, 직무연수 강화(30.7%), 수업연구 개발(17.9%), 스스로 계획세우고 실천(12.1%), 영양(교)사 모임의 연대(2.9%), 기타(2.1%)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충북지역 초등학교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²⁵⁾에서도 교수능력 향상방안으로 수업연구 개발(38.8%), 직무연수 강화(32.8%), 학습자료 개발(24.0%)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고, 전은주²¹⁾의 연구에서는 교수법 미숙을 위한 해결방안으로 직무연수가 52.4%, 지역별 영양교사 모임의 연대(동료장학)이 28.6%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영양(교)사의 교수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학습자료 및 교육프로그램과 지속적인 직무연수의 필요성을 알 수 있었다.

과중업무 해결방안으로는 급식행정업무의 간소화 61.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인 1개교 영양(교)사 배치(27.9%), 영양(교)사 업무의 재조정(10.7%)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기적 영양·식생활교육 운영방안은 식생활교육 독립교과 설치가 52.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존교과목과 연계지도(22.1%), 특별프로그램 운영(15.7%), 다른 기관과의 연계 실시(6.4%), 기타(2.9%)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명실 등²⁵⁾의 연구에서도 식생활교육의 독립교과 설치(44.2%)가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으며, 정효숙과 이희란¹⁶⁾의 연구에서는 학년별 학습자료 개발(4.28), 일회성이 아닌 정기적인 수업으로 정착(4.26)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학교관리자 및 학부모 관심향상 방안은 식생활 관련 수업공개 및 급식공개의 날 운영(42.9%), 교내행사를 통한 홍보(20.0%),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나 학부모·교사 회의에서 교육추진(15.0%), 가정통신문을 통한 홍보(10.0%), 학교홈페이지를 통한 홍보(8.6%), 기타(3.6%)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8> 영양·식생활교육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

구 분	항 목	N(%)
교수능력 향상 방안	학습자료 개발	48(34.4)
	직무연수 강화	43(30.7)
	스스로 계획세우고 실천	17(12.1)
	영양(교)사 모임의 연대	4(2.9)
	수업연구 개발	25(17.9)
	기타	3(2.1)
과중업무 해결 방안	1인 1개교 영양(교)사 배치	39(27.9)
	급식행정업무의 간소화	86(61.4)
	영양(교)사 업무의 재조정	15(10.7)
정기적 영양·식생활 교육운영 방안	특별프로그램 운영	22(15.7)
	식생활교육 독립교과 설치	74(52.9)
	기존교과목과 연계지도	31(22.1)
	다른 기관과의 연계실시	9(6.4)
	기타	4(2.9)
학교관리자 및 학부모 관심향상 방안	교내행사를 통한 홍보	28(20.0)
	학교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12(8.6)
	가정통신문을 통한 홍보	14(10.0)
	식생활 관련 수업공개 및 급식공개의 날 운영	60(42.9)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나 학부모·교사 회의에서 교육추진	21(15.0)
	기 타	5(3.6)
계		140(100.0)

4. 학교에서의 영양상담

1) 영양상담 실태

조사대상의 영양상담 실시여부는 <표 19>에 제시하였으며, 시행하는 경우가 95.0%, 시행하지 않는 경우는 5%로 나타났다. 경기지역 영양사를 대상으로 한 이미영 등⁹⁾의 연구에서는 영양상담 실시율이 26.2%으로 조사되었고, 경북지역 이경혜 등⁶¹⁾의 연구에서는 영양교사의 41.4%가 영양상담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충북지역 김명실 등²⁵⁾의 연구에서는 실시율이 62.8%로 보고되어 실시율이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19> 영양상담 실시여부

구 분	항 목	N(%)
영양상담 실시여부	예	133(95.0)
	아니오	7(5.0)
	계	140(100.0)

조사대상의 일반사항에 따른 대상별 상담횟수는 <표 20>과 같다. 전체적으로 상담횟수는 학생(월2.83회), 학부모(월0.66회), 교직원(월0.56회)의 순으로 나타나 학부모, 교직원 대상으로 한 영양상담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민경찬 등⁶²⁾의 연구에서도 학부모 대상 영양상담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88.6%)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급식인원수에 따라서는 전반적으로 급식인원이 많을수록 상담횟수가 높게 나타났다. 급식인원 1000명이상(1.39회)이 500명 미만과 1000명 미만(각각0.44회, 0.56회)에 비해 ‘학부모대상 영양상담’ 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5$). 고용형태에서는 영양교사의 상담횟수가 대체적으로 영양사에 비해 높

게 나타났고 급식유형의 경우 도시형의 상담횟수가 농어촌·도서벽지형에 비해
 많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20> 대상별 상담횟수

		Mean±S.D.		
구 분		학생	학부모	교직원
근무 경력	10년 미만(n=49)	2.78±4.084	0.69±1.862	0.45±0.891
	10년 ~20년 미만(n=53)	3.25±3.873	0.66±1.663	0.72±1.703
	20년 이상(n=38)	2.32±1.491	0.61±0.679	0.50±0.604
	F-value	0.797	0.035	0.692
고용 형태	영양교사(n=94)	2.68±3.125	0.66±1.395	0.62±1.392
	영양사(n=46)	3.13±4.129	0.65±1.804	0.46±0.721
	t-value	-0.717	0.027	0.734
학교 형태	초등학교(n=77)	2.56±3.614	0.47±0.575	0.45±0.575
	중학교(n=31)	3.55±4.816	1.10±2.256	1.03±2.273
	고등학교(n=25)	2.84±2.688	0.80±2.398	0.28±0.542
	기타 (n=7)	2.57±2.225	0.29±0.488	0.71±1.113
	F-value	0.605	1.462	2.306
급식 유형	도시형(n=78)	3.06±3.572	0.83±1.990	0.65±1.519
	농어촌·도서벽지형(n=62)	2.53±3.362	0.44±0.532	0.45±0.645
	t-value	0.898	1.531	0.980
급식 인원	500명 미만(n=80)	2.36±2.995	0.44±0.548 ^a	0.44±0.633
	500~1000명 미만(n=32)	2.84±1.936	0.56±0.982 ^a	0.59±0.979
	1000명 이상(n=28)	4.14±5.414	1.39±3.071 ^b	0.89±2.266
	F-value	2.787	4.289*	1.485
급식 횟수	1일 1식(n=118)	2.82±3.603	0.63±1.273	0.62±1.294
	1일 2·3식(n=22)	2.86±2.783	0.82±2.557	0.27±0.550
	t-value	-0.051	-0.535	1.231
전체(n=140)		2.83±3.478	0.66±1.535	0.56±1.213

* : p<0.05, a,b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b)

(1) 학생대상 영양상담

조사대상자의 근무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영양상담 형태는 <표 21>과 같으며, 대면상담(95.4%),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한 사이버 상담(29.3%), 전화상담(21.0%), 기타(2.2%)의 순으로 나타났다. 박소현²⁾의 연구에서도 영양상담 방법으로 대면상담을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어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고, 이경혜⁵⁴⁾의 연구에서도 영양상담 방법은 개별상담 73.6%, 개별·집단상담 11.3%로 나타났다. 반면 홍영선²⁴⁾의 연구에서 영양상담 형태는 인터넷(학교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간접 개인상담(63.1%)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표 21> 영양상담 형태 N=133

구 분	항 목 ¹⁾	N(%)
영양상담 형태	대면상담	127(95.4)
	전화상담	28(21.0)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한 사이버 상담	39(29.3)
	기 타	3(2.2)

1)다중응답

대면상담 운영 실태는 <표 22>~<표23>에 제시하였다. 영양상담 1회 소요시간은 20분 미만(84.3%), 20~30분 미만(14.2%), 기타(1.5%) 순으로 나타났고, 상담 신청 절차 및 방식은 개별적으로 상담일시를 정함이 44.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가정통신문을 통해 영양상담 신청서 작성(34.6%), 기타(14.2%), 담임교사 통한 추천(7.1%)순이었다. 영양상담 실시장소로는 영양관리실(89.8%), 식생활교육관(8.7%), 영양 상담실, 기타(각각 0.8%)의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 영양 상담을 위한 별도로 마련된 장소는 갖춰져 있지 않았으며 영양상담 실시 후 지속적 관리는 5점 만점에 대해 2.69점으로 낮은 점수를 보여 상담 후 관리는 미흡하였다. 또한, 연수경험 여부를 조사한 결과 경험이 없는 경우가 80.3%로 높게 나타났다.

<표 22> 대면상담 운영 실태 I

N=127

구 분	항 목	N(%)
영양상담 1회 소요시간	20분 미만	107(84.3)
	20~30분 미만	18(14.2)
	기타	2(1.5)
상담 신청절차 및 방식	담임교사 통한 추천	9(7.1)
	개별적으로 상담일시를 정함	56(44.1)
	가정통신문을 통해 영양상담 신청서 작성	44(34.6)
	기타	18(14.2)
영양상담 실시장소	식생활교육관(기존의 식당)	11(8.7)
	영양관리실(기존의 사무실)	114(89.8)
	영양상담실(별도로 마련된)	1(0.8)
	기타	1(0.8)
영양상담 실시 후 지속적 관리 ¹⁾		2.69±0.73 ²⁾
연수경험 여부	예	25(19.7)
	아니오	102(80.3)
계		127(100.0)

1)5점척도(1: 전혀 잘되고 있지 않다, 5:매우 잘 된다)

2)Mean±S.D.

영양상담의 내용은 과식·편식·결식(98.4%)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과체중 및 비만(86.6%), 식품알레르기 및 아토피(78.7%), 저체중 및 성장부진(17.3%), 빈혈(3.9%), 기타(3.1%)순으로 나타났으며, 상담 시 사용하는 도구는 식사기록지(34.6%), 기타(29.2%), 식사지침(22.0%), 기초식품군과 식품구성 자전거(10.2%), 식품 교환표(4.0%)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상담관련자료 수집방법으로는 영양사전문사이트가 44.9%로 가장 많이 이용되었고, 다음으로 관련지침서(18.9%), 동료 영양(교)사와의 정보교환(18.1%), 관련협회(13.4%), 기타(4.7%)의 순이었다. 다른 교과와의 연계 실시는 영양(교)사의 60.6%가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¹¹⁾에서는 비만학생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체육교사의 운동처방과 영양(교)사의 영양상담, 보건교사의 건강 상담을 연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표 23> 대면상담 운영실태 II

		N= 127
구 분	항 목	N(%)
영양 상담내용 ¹⁾	과체중 및 비만	110(86.6)
	저체중 및 성장부진	22(17.3)
	식품알레르기 및 아토피	100(78.7)
	과식·편식·결식	125(98.4)
	빈혈	5(3.9)
	기타	4(3.1)
상담 시 사용하는 도구	식사 기록지	44(34.6)
	식품 교환표	5(4.0)
	기초식품군과 식품구성 자전거	13(10.2)
	식사지침	28(22.0)
	기타	37(29.2)
상담 관련자료 수집방법	관련지침서	24(18.9)
	관련협회(대한영양사협회 등)	17(13.4)
	동료 영양(교)사와의 정보교환	23(18.1)
	영양사전문사이트(영양사 도우미 등)	57(44.9)
다른 교과와의 연계 실시 여부	예	77(60.6)
	아니오	50(39.4)

1) 다중응답

(2)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영양상담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영양상담 운영형태는 <표 24>와 같다. 교직원대상 영양상담 형태는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한 사이버 상담(44.4%), 대면상담(33.3%), 관련책자(홍보물) 배포(24.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부모 대상의 경우에는 전화상담(60.3%), 가정통신문을 활용한 상담(43.1%),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한 사이버 상담(31.0%), 대면상담(17.2%)순으로 많이 이뤄지고 있었다.

이미영의 연구⁶³⁾에서는 상담실시율이 낮았으나 교직원과 학부모 영양상담 방법으로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57.1%)을 주로 이용하였고, 전화상담 및 영양 상담 실운영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표 24>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영양상담 운영형태

구 분	항 목 ¹⁾	N(%)
교직원 ²⁾	대면상담	18(33.3)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한 사이버상담	24(44.4)
	관련책자(홍보물)배포	13(24.0)
학부모 ³⁾	대면상담	10(17.2)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한 사이버상담	18(31.0)
	가정통신문을 활용한 상담	25(43.1)
	전화상담	35(60.3)

1) 다중응답

2) N=54

3) N=58

2) 영양 상담에 대한 인식 및 의견

영양 상담에 대한 인식 및 의견은 <표 25>~<표26>과 같다. 영양상담 활성화 정도에 대한 인식은 5점 만점에 대해 2.46점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영양상담 시작 적합 시기는 초등학교 저학년(53.6%)이 제일 적절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초등학교 고학년(38.6%), 중학교(5.7%), 고등학교(1.4%), 기타(0.7%)의 순으로 나타났다. 효과적인 소요시간에 있어서는 20분 미만(62.9%), 20~30분 미만(34.3%), 30~40분 미만(2.9%)의 순으로 나타났고, 효율적 방안으로는 일회성이 아닌 주기적 상담, 영양(교)사의 상담기술(각각 4.49점)이 높게 나타났고, 다양한 영양상담 도구 사용, 쾌적하고 조용한 상담환경(각각 4.28점), 상담은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인식(4.21점)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영양(교)사들은 영양상담의 효율적 방안에 대해 ‘그렇다(4점)’ 이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25> 영양 상담에 대한 인식 및 의견 I

N= 140

구 분	항 목	Mean±SD
영양상담 활성화 정도 ¹⁾		2.46±0.74 ³⁾
영양상담 시작 적합시기 ²⁾	초등학교 저학년	75(53.6)
	초등학교 고학년	54(38.6)
	중학교	8(5.7)
	고등학교	2(1.4)
	기타	1(0.7)
효과적인 소요시간 ²⁾	20분 미만	88(62.9)
	20~30분 미만	48(34.3)
	30~40분 미만	4(2.9)
효율적 방안 ¹⁾	영양(교)사의 상담기술	4.49±0.56
	쾌적하고 조용한 상담환경	4.28±0.61
	일회성이 아닌 주기적 상담	4.49±0.59
	다양한 영양상담 도구 사용	4.28±0.70
	상담은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인식	4.21±0.74

1)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 매우 그렇다)

2) N=140

3) Mean±S.D.

영양상담 실시에 겪는 어려운 점으로는 과중 업무로 인한 상담시간 부족이 4.20점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고, 다음으로 상담프로그램 및 자료의 부족 (3.89점), 영양상담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인식부족(3.76점), 영양(교)사 본인의 상담 기술 미흡(3.64점), 영양상담에 대한 학교관리자의 인식부족(3.52점), 영양상담 공간 미확보(3.21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박소현⁵⁵⁾에 의하면 영양상담 미실시 이유로는 영양교사의 업무과다로 인한 시간부족 때문이 56.1%로 나타났고, 이경혜 등⁵⁴⁾의 연구에서도 영양 상담 미실시 이유가 시간부족 30.7%, 제도적 문제 26.7%, 프로그램 부재 14.7%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영양상담 실시를 통한 기대효과는 영양관리 능력 증진(4.06점), 자신감을 갖고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4.01점), 영양문제 해결에 책임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3.96점), 개인별 영양문제 해결(3.91점),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3.88점)의 순으로 기대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표 26> 영양 상담에 대한 인식 및 의견 II

N=140

구 분	항 목	Mean ± SD
영양상담 실시에 겪는 어려운 점 ¹⁾	영양상담 공간 미확보	3.21±1.02
	영양(교)사 본인의 상담기술 미흡	3.64±0.78
	상담프로그램 및 자료의 부족	3.89±0.77
	과중업무로 인한 상담시간 부족	4.20±0.80
	영양상담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인식 부족	3.76±0.84
	영양상담에 대한 학교관리자의 인식 부족	3.52±0.95
영양상담 실시를 통한 기대효과 ²⁾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	3.88±0.75
	영양관리 능력 증진	4.06±0.64
	자신감을 갖고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	4.01±0.72
	영양문제 해결에 책임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	3.96±0.75
	개인별 영양문제 해결	3.91±0.78

1) 5점 척도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 매우 그렇다)

2) 5점 척도 (1점: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 5점 : 매우 효과적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제주지역 초·중·고등학교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식생활교육 및 영양상담의 실태와 인식도를 조사·분석함으로써 학교에서의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식생활교육 및 영양상담 실시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에서 연령은 40~49세가 57.9%로 높게 나타났고, 근무경력은 10년 이상~20년 미만(37.9%)의 근무자가 많았으며, 고용형태에 있어서는 영양교사(67.2%), 학력은 대학교 졸업(67.9%)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조사대상자의 근무지 특성을 조사한 결과 학교 설립유형은 국·공립이 89.3%였고, 학교형태는 초등학교(55.0%)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학교급식유형은 도시형이 55.7%로 나타났고, 급식운영 형태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단독관리(90.7%)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급식인원수는 500명 미만이 57.1%, 급식횟수는 1일1식의 학교가 84.3%로 많았다.

둘째, 영양(교)사 직무를 급식관리, 영양·식생활교육 및 영양상담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중요도 및 수행도를 분석한 결과, 모든 영역에서 중요도가 수행도에 비해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p < 0.001$)를 보였고, 영양·식생활교육과 영양상담은 급식관리 영역에 비해 중요도와 수행도 모두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다.

셋째, 영양·식생활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영양(교)사는 92.1%이며, 학생대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월 3.71회로 가장 많았고, 근무경력이 많을수록($p < 0.01$), 영양교사가 영양사에 비해 교육 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학생대상 영양·식생활교육은 직접형태에서는 배식관리와 편식교정, 식사예절 등 급식

지도를 실시하는 경우(87.5%)가 가장 많았고, 간접형태의 경우 가정통신문을 통한 교육은 96.8%, 학교홈페이지를 통한 교육은 96.1%로 높게 나타났으며, 직접 형태 영양·식생활교육은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54.1%)을 이용하여 강의식(59.7%)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고, 조사대상의 83.3%가 지도계획 및 교수 학습 자료를 준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영양사전문사이트(31.7%)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넷째, 조사대상의 영양·식생활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교육 활성화 정도는 5점 만점에 대해 2.86점으로 낮게 나타났고, 영양·식생활교육 시작 적합 시기는 초등학교 저학년이 85.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효과적인 이용시간으로는 관련교과(실과, 기술·가정 등)수업시간(47.1%), 창의적 체험활동(특별, 재량활동포함)시간(44.3%)이 높게 나타났고, 교육 실시에 겪는 어려운 점은 과중한 급식 및 행정업무(4.36점), 표준화된 지도안 및 지침서 부족(4.06점), 식생활교육 과정의 체계화 부족(4.00점), 정규수업시간의 부재(3.94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영양·식생활교육 실시를 통한 기대효과로는 바른 식습관 형성(4.29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조사대상의 영양·식생활교육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에 있어서는 교수능력 향상방안으로는 학습자료 개발(34.4%), 직무연수 강화(30.7%)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과중업무 해결방안은 급식행정업무의 간소화(61.4%)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기적 영양·식생활교육 운영 방안으로는 독립교과 설치(52.9%), 기존 교과목과 연계지도(22.1%)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영양상담에 있어서는 조사대상자의 95.0%가 상담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대상별 상담횟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월 2.83회로 가장 많았고, 학부모 대상 영양상담은 급식인원수가 많을수록 상담횟수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 < 0.05$). 학생을 대상으로 한 영양상담에 있어서는 주로 대면상담(95.4%)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대면상담 1회 소요시간은 20분 미만(84.3%), 상담 신청절차 및 방식은 '개별적으로 상담일시를 정함(44.1%)', 영양상담 실

시장소는 영양관리실(89.8%)이 높게 나타났다. 상담 실시 후 지속적 관리는 5점 만점에 대해 2.69점으로 나타났으며, 조사대상의 80.3%가 연수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상담의 내용으로는 과식·편식·결식이 98.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상담 시 사용하는 도구는 식사기록지(34.6%)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상담관련 자료는 주로 영양사 전문사이트(44.9%)를 이용해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조사대상의 영양 상담에 대한 인식 및 의견에 있어서는 영양상담 활성화 정도는 5점 만점에 대해 2.46점으로 나타났으며, 상담 시작 적합 시기는 초등학교 저학년(53.6%), 효과적인 소요시간은 20분 미만(62.9%)이 높게 나타났고 영양상담 실시를 위한 효율적 방안으로는 일회성이 아닌 주기적 상담, 영양(교)사의 상담기술이 각각 4.9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영양상담 실시에 겪는 어려운 점은 ‘과중한 업무로 인한 상담시간 부족(4.20점)’, ‘상담프로그램 및 자료의 부족(3.89점)’, ‘영양 상담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인식부족(3.76점)’의 순으로 나타났고 영양상담 실시를 통한 기대효과로는 ‘영양관리 능력 증진이 4.06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학교에서의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영양·식생활교육 및 영양상담 실시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영양(교)사의 직무 중요도와 수행도에 있어 영양·식생활교육 및 상담의 수행도는 급식관리에 비해 낮게 나타났는데, 영양(교)사는 과중한 급식 및 행정업무로 인한 시간부족 등의 원인으로 교육 및 상담실시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영양·식생활 교육 및 상담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필요한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조사대상 영양(교)사들은 교수능력 향상을 위해 학습자료 개발, 직무연수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고, 대부분이 영양교육 및 상담관련 연수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영양(교)사의 교수 학습 관련 지식 습득 및 수업의 전

문성 향상을 위한 정기적인 연수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조사대상 영양(교)사들이 정기적인 영양·식생활교육 운영방안으로 독립 교과 설치를 높게 인식하고 있어 영양·식생활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학교 교과과정에 관련 교과목의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VI. 참고문헌

- 1) 김주영, 심기현. 식생활교육지원법 실시 이후 초등학교 식생활교육 실태 및 인식. 한국식품영양학회지. 2011; 24(3): 295-305.
- 2) 박소현. 서울지역 초등학교의 영양교육 및 상담현황과 개선방안.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3) 구재욱, 김경원, 김창원, 박동연, 박혜련, 윤은영. 영양교육의 이론과 실제. 파워북; 2008.
- 4) 박남경. 경기도 지역 학교 영양사의 영양교육 실태와 인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5) 모수미, 구재욱, 박양자, 박영숙, 손숙미, 서정숙. 지역사회 영양학. 교문사; 2006.
- 6) 김정숙, 방명순, 조영선, 이정원. 식사 구성안에 관한 학교 영양교육이 청소년의 식품군별 섭취 빈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2005; 10(5): 582-591.
- 7) 홍순명. 영양상태 판정 및 영양상담. 내하출판사; 2005
- 8) 이영민. 초등학교 재량활동을 통한 식생활교육 효과 : 4, 5, 6학년 영양지식과 식생활습관 개선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9) 이미영, 최경숙. 학교급식 영양사의 영양상담 실태 및 활성화 방안. 한국지역

사회생활과학회지. 2013 ; 24(4): 497-515.

10) 김정균, 강지용, 진세열. 영양교육. 지구문화사; 1989.

1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 기본방향; 2015.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급식법 시행령.

13) 김현정. 초등학교의 영양교육 현황과 방법에 대한 문헌고찰.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14) 교육부.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규정. 훈령 제 31호. 2014.

15) 강은정. 초등학생대상 식생활교육에 따른 식생활태도와 학교급식 만족도 및 잔반비교.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16) 정효숙, 이희란. 경남지역 초·중등학교 학교급식 영양(교)사의 영양교육 실태 및 인식에 관한 연구. 기초과학지. 2013; 30: 41~59.

17) 박정아. 인천지역 초등학교 영양교육 실태조사: 교사, 영양사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18) 허은실, 양한라, 윤현숙, 이경혜. 경남지역 초등학교 영양사의 영양교육 실시 현황 및 인식조사: 공동관리 여부와 경력을 중심으로.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2002;7(6): 781-793.

19) 박정아, 장경자. 인천지역 초등학교 영양사의 영양교육 실태 및 인식에 관한 연구.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2004;9(6): 716-724.

- 20) 박유화, 김현희, 신경희, 신은경, 배인숙, 이연경. 전국 초등학교 영양교육 실태 및 영양교사의 영양교육 실시를 위한 학교에서의 인식도 조사. 한국영양학회지. 2006;9(4): 403-416
- 21) 전은주. 영양교사 전환배치 후 영양교사의 영양교육 실태 및 인식 : 전라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22) 최영은. 부산지역 초등학교 영양교사의 영양교육 실태 조사.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23) 정효숙, 이정숙. 경남지역 영양(교)사의 영양교육 실태와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식품조리과학회지. 2012; 28(3); 229-240.
- 24) 홍영선. 경기지역 학교 영양(교)사의 영양교육 및 상담실태 관련요인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25) 김명실, 김혜진, 이영은. 충북지역 초등학교 영양교사의 식생활교육과 영양상담 운영실태 및 인식.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2013; 42(12); 2049-2067.
- 26) 문수재, 이명희. 어린이의 식생활태도가 영양상태 및 성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영양학회지. 1987; 20(4):258-271.
- 2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식생활교육지원법
- 28) 김유경. 초등학생 학부모들의 자녀 간식 및 식생활 교육에 대한 실태 및 인식. 한국식품조리과학회지. 2010; 26(5): 596-602.
- 29) 김창임, 박영숙, 이정원, 현화진. 학교영양사가 요구하는 영양교육 교재의 특성. 대한영양사회 학술지. 2006; 12(3): 243-253.

- 30) 정경아. 초등학교 영양교육 실태에 관한 국내 연구논문의 내용분석. 실과교육연구. 2013; 19(1): 117-145.
- 31) 한양희. 전주·완주 초등학교 교사의 영양교육에 대한 인식.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32) 이희숙.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의 식습관과 성격과의 관계연구. 춘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33) 이윤주, 김경미, 장경자. 인천시내 초등학교 학생의 영양교육 효과분석. 대한영양사협회학술지. 2000; 6(2):86-96.
- 34) 김경미 외. 서울·인천지역 학교급식 영양사의 영양관리 실태조사. 대한영양사학회학술지. 2003; 9(1):51-70.
- 35) 전세경. 학교식생활교육의 교육적 의의와 효율적 추진방안. 한국가정교육학회지. 2010; 22(1):117-135.
- 36) 김정현, 전세경, 이민준. 초등학교에서 교과기반 통합식생활교육 적용방안 연구(2): 제2보: 초등학교에서의 교과기반 식생활교육의 통합적용. 한국실과교육학회지. 2010; 23(4): 1-18.
- 3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급식법.
- 38) 김은미. 초등학교 교사가 인식하는 식생활교육 및 영양교사의 역할.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39)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2006.

- 4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영양관리법.
- 4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42) e-나라지표. 학교급식 실시현황;2013.
- 43) 제7차 초등학교 교육과정. 교육부.
- 44) 윤현숙. 충남지역 학교급식 영양교사들의 영양교육 실태 및 개선방안.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45) 박영숙, 이정원, 서정숙, 이보경, 이혜상. 영양교육과 상담(제2개정판), 교문사; 2007.
- 46) Snetselaar. Nutrition counseling skills assessment. treatment and evaluation 2nd. An Aspen Publication; 1989.
- 47) 손숙미, 이경혜, 김경원, 이연경. 영양교육 및 상담의 실제, 라이프사이언스 ;2007
- 48) 강원도교육청. 학교급식기본방향; 2007.
- 49) 이영남, 정은자, 박란숙. 영양교육 및 상담. 수학사; 2007.
- 50) 교육인적자원부. 학교급식법령해설서; 2007.
- 51) 이인숙. 초등학생의 영양상담에 따른 인식, 흥미도 및 영양지식- 경북지역 중심.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2011;21(1):146~153.

- 52) 승정자, 성미경, 최미경, 강영림, 권순자 등. 우리나라 일부 초등학생의 식생태에 관한 연구.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2001;6(2):150-161.
- 53) 2013 국민건강통계. 보건복지부
- 54) 이경혜. 경북지역 학교영양상담 현황 및 문제점분석. 대구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55) 박소현. 학교급식 식생활교육 평가도구 개발과 운용시험 평가.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56) 신왕미. 대전·충남지역 학교급식 영양(교)사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9.
- 57) 류경. 학교급식 단독관리와 공동관리 영양(교)사의 직무수행도 및 직무만족도.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58) 이옥희, 장순옥, 박민정. 초등학생의 영양교육에 따른 영양지식, 식생활태도 및 식습관의 비교.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2008; 37(11):1427-1435.
- 59) 이정은. 경기도지역 학교 영양(교)사의 영양교육 실태와 인식에 관한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60) 정난희, 오순희. 광주,전남지역 초등학교 교사의 영양교육 실태조사. 한국가정과학회지. 2005;8(3)11-21.
- 61) 이경혜, 최봉순, 이인숙. 경북지역 학교 영양교사의 영양상담 시행에 따른 직무만족도와 중요도-수행도 조사.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2010; 20(6):1018~1028.

62) 민경찬, 박영심, 박혜원, 이명호, 신용철, 조규봉, 이경익, 정광옥, 신임숙, 윤희선. 경기 북부 지역 초등학교 영양사의 영양교육 실시 현황. 한국식품영양학회지. 2006;19(2): 183-192.

63) 이미영. 일부학교 급식 영양사의 영양상담 실태 조사. 대진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9.

Abstract

**A study on the operation and perception on dietary life
education and nutrition counseling of nutrition teachers
and dieticians in Jeju**

Eun-A Park

Department of Nutrition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analyze the operation and perception on dietary life education and nutrition counseling of nutrition teachers and dieticians at schools in Jeju and provide the effective ways to implement dietary life education and nutrition counseling of schools. The subjects included 94 nutrition teachers and 46 dieticians working at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in Jeju surveyed from May 7-14, 2015. The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analysis, χ^2 -test, t-test, ANOVA, using the SPSS Win program(version 18.0).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the working periods, 37.9% of subjects showed 10 years more and less than 20 years and 67.2% of subjects were the school nutrition teachers. The type of schools was public with 89.3% and the forms of school was elementary school with 55.0%, and food provision was urban type with 55.7%. As for the type of foodservice,

most of subjects were self-operation management with 90.7%.

Second, as the analysis results of works of nutrition teachers and dieticians by three categories, that is foodservice operation, nutrition and dietary life education, and nutrition counseling, the importance of work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performance in all aspects($p < 0.001$). Nutrition and dietary life education and nutrition counseling showed lower scores than foodservice operation in all the importance and performance.

Third, 92.1% of subjects implemented nutrition and dietary life education and the education for students indicated the highest frequency with 3.71 times a month. Nutrition teachers showed the more education frequency than dieticians($p < 0.05$). In terms of the direct education for students, 87.5% of subjects implemented the foodservice guidance. Indirect education for students were the education through home correspondence with 96.8% and the education through school homepage with 96.1%.

Forth, regarding the perception of subjects for nutrition and dietary life education, effective education time were the related course time(that is, practical arts and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with 47.1% and the creative experience activity time(including extracurricular activity) with 44.3%. In terms of difficulties of education program operation, heavy foodservice and administration works showed the highest score, at 4.36 points.

Fifth, with regard to the opinion for improvement of nutrition and dietary life education, teaching ability improvement were the developing

teaching materials with 34.4% and strengthening job training with 30.7%. In terms of solution of overwork, 61.4% of subjects perceived that they needed to simplify administration works. Regular operation of nutrition and dietary life education was the adoption of the independent course for nutrition and dietary life education with 52.9%.

Sixth, 95.0% of subjects implemented nutrition counseling and the counseling for students indicated the highest frequency with 2.83 times a month. In terms of counseling for student, 95.4% of subjects implemented by face to face counseling. Continuous management after the counseling scored 2.69 points, out of 5 scales. And 80.3% of the subjects did not have training experience.

Seventh, regarding the perception and opinion of subjects for nutrition counseling, the methods for efficient nutrition counseling were regular counseling with 4.90 points and counseling skills of nutrition teacher and dieticians with 4.90 points, out of 5 scales. In terms of difficulties of nutrition counseling, the deficiency of counseling time due to heavy work scored 4.20 points and the shortage of counseling program and related data scored 3.89 points and insufficient perception of parents and students on nutrition counseling scored 3.76 points, out of 5 scales.

Finally, nutrition teachers and dieticians had difficulties in operating the nutrition and dietary life education and nutrition counseling because of too much foodservice and administrative works. To implement effective nutrition and dietary life education and nutrition counseling, research on reducing unnecessary administrative works and job analysis is needed.